

일산 전원 주택의 리모델링 여정기

세련미와 인간미가 어우러진 공간

일산의 전원 주택 단지 내 위치한 마당 넓은 집. 건축된 지 20여 년이 지난 이 집은 기존의 그림 같은 전원 주택이 지닌 따뜻함과 넉넉함이 배어 있는 곳이다. 외관의 모습은 살리되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교체해 세련된 아름다움을 갖춰가고 있다. 에디터 권희란 사진 양진욱 제품 협찬 앤틱 반, 장식가게고리

대문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입구. 밝은 톤의 벽돌로 마감된 아치형의 현관이 격조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1



2

12층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가 있는 1층의 거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앞으로는 통 유리창이 있어 실내를 환히 비춰주며 아울러 어둡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벽돌로 마감된 거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마저 따스롭고 포근하게 채워준다. 2 중국풍의 엔틱 의자와 마블로 블랙의 자줏빛 구두가 놓인 깔끔한 현관. 대리석 재질로 된 타일 바닥이 깨끗하고 모던한 느낌을 준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주택 규모도 크기로 유명한 일산의 전원 주택 단지는 오래된 고택과 운치있는 풍광이 멋스러운 곳으로 유명하다. 촬영팀이 찾은 일산의 주택은 마침 조경 공사가 한창이었다. 대지 150평, 건평 90여 평의 규모를 가진 넓고 탁 트인 전망이 특징인 주택이기도 하다. 건축된지 20여 년이 넘는 고택이지만 워낙 튼튼하게 설계돼 낡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곳이다. 기존의 내부 구조는 바꾸지 않고 벽지와 가구를 교체해 전혀 색다른 집의 느낌을 내고자 했다. 단독 주택은 아파트보다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는 사람의 개성을 맘껏 표현할 수 있는 넓은 정원이 있어 자연과 벗삼아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일산의 고급 전원 주택들은 대지의 평수가 150평 이상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공간 설계와 건축이 가능한 것이 특징.

최근의 인테리어 경향은 ‘심플&럭셔리’. 인테리어 디자인 숲 (Design Sloop)의 이정임 소장은 “최근 호화로운 마감재 대신 심플한 자재를 써서 건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래된 단독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작업에도 이 같은 최근 인테리어 경향을 도입해 거실에는 원목 마루를 깔고 가구를 선택할 때에도 장식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죠. 다만 주방 가구와 가전 제품은 외국의 빌트인 시스템 브랜드를 설치해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고 말한다. 최근 대리석으로 거실이나 침실의 바닥을 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인간미와 온기를 표현하는 데는 원목의 느낌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단 깔끔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중요한 주방에는 특별히 대리석이나 석재로 그 느낌을 더 살려줄 수 있다. 이 저택도 주방과 지하 게스트 룸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컬러는 화이트로, 마감재는 나무와 석재를 골고루 혼합해 시공하는 등 따뜻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주고자 했다.

기품있고 유서 깊은 전당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일산 전원 주택의 정원은 이제 막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저기 땅이 파헤쳐지고 수많은 나무와 석재들이 한쪽을 빼곡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흡사 공사 현장을 방불케 했다. 150여 평의 넓은 대지는 곧 한국적



2층에는 혼자 차분하게 독서를 즐기거나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오붓한 공간이 있다. 계절에 맞게 밝은 화이트 톤으로 방의 전체를 꾸몄다. 소파와 바닥, 스톨까지 온통 순수한 이미지의 화이트 컬러로 마감했다.



1 작은 플라워 프린트가 새겨진 핑크빛 침대 클로스와 연한 푸른이 아름다운 벽, 그리고 하얗고 깨끗한 시트와 앤티크 스탠드가 어우러진 낭만적인 2층의 침실 2 지하에는 게스트 룸이 꾸며져 있는데, 방과 거실, 그리고 작은 욕실로 이뤄져 있다. 밝고 화사한 베이지 톤의 소파와 짙은 장밋빛 파우치가 있어 우아한 느낌도 준다. 상들리에와 스탠드 등 조명을 많이 갖추고 있어 지하가 쓸 수 있는 어둡거나 탁한 느낌을 배제했다. 3 2층에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된 침실에는 화장대가 따로 없다. 대신 앤티크 빛과 거울, 향수와 영국의 테이블 레이스로 만들 수 있는 즉흥적인 메이크업 룸이 있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인 정원의 모습으로 가꿔질 전망이다. 전나무, 소나무 등과 다양한 석재를 들여놓아 운치있는 공간으로 바뀔 정원과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기품있는 곳은 바로 이 집의 현관. 아치형의 천장과 벽돌로 전체가 마감돼 견고하면서도 격조있는 분위기다. 현관을 들어서면 중국풍의 앤티크 의자가 놓여 있고 바닥은 깔끔하게 타일로 구성돼 있다. 마치 산중의 작은 별장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이 집의 거실은, 탁 트인 통 유리창 덕분에 150여 평의 넓은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도 자랑거리. 밝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든의 모습으로, 안은 유럽의 별장이 내려앉은 듯한 분위기로 복합적인 매력이 가득한 집이다.

특히 2층에 꾸며진 게스트 룸의 침실은 심플하지만 부분적으로 로맨틱한 장식이나 소품이 구비돼 있어 마치 중세 유럽의 귀족의 방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또 손님과 차 한잔 마실 때, 혹은 개인적인 사색의 시간을 갖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을 마련하는 게스트 룸도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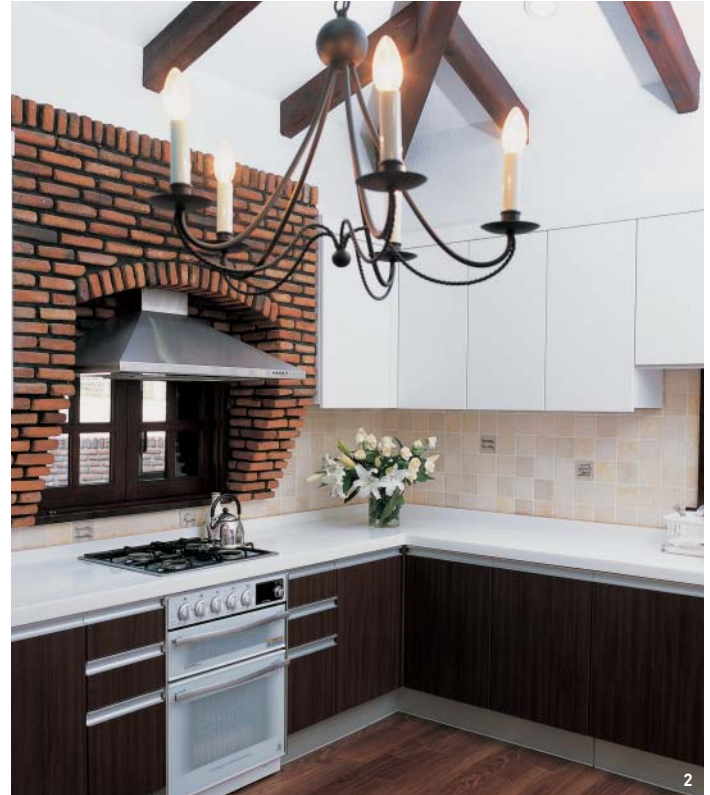
곳의 천장은 마치 다락방의 사선으로 기울어진 천장과도 같은 모양을 띠어 동화적인 느낌마저 주고 있다. 격자무늬 창문으로 들어오는 파스한 햇살과 곳곳에 놓인 인형, 미니어처 구두, 양서, 액자들은 작은 앤티크 습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전달하고 있다. 2층의 게스트 룸을 둘러본 후 내려간 지하의 또 다른 게스트 룸은 앤티크 소파와 스탠드, 조금은 모던한 분위기로 꾸며진 침실 등으로 이뤄진 곳. 습기와 곰팡이 문제는 배기 시스템을 보완해 해결하고 있다. 과거 몇십 년 전에 건축된 옛 주택의 골조를 제거하지 않고 부분적인 인테리어와 마감재 등만 바꾸다 보니 1층과 2층, 지하층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뿜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간마다 동일한 앤티크 소품을 놓아 일관된 컨셉트를 유지했고 커튼이나 침대 시트 등을 가능하면 같은 컬러로 통일시키는 등 세심한 신경을 쓰기도 했다.



1층의 서재는 비교적 클래식한 가구들로 채워 품위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튀지 않는 베이지와 브라운이 섞인 격자무늬 벽지가 더욱 안정적인 실재를 만들고 있다.



1



2

1 적당한 인테리어 소품이 없을 때 작은 골동품 액세서리와 꽃으로 테이블을 장식해보자. 일반적인 공간을 특별하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바꿔줄 수 있다. 2 빌트인 시스템의 주방 구조. 브라운과 베이지 컬러가 주로 쓰인 주된 색상들이다. 역시 주방에도 메인 컬러가 사용됐는데 벽돌과 베이지 톤의 타일 벽, 따뜻한 느낌의 원목 마룻바닥 때문에 하얀 컬러의 빌트인 주방 가구가 더욱 돋보인다.

전통적인 기품과 현대적인 트렌드가 공존한다. 일산의 전원 주택가는 외부에서 보면 비교적 획일적이라는 느낌을 전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집집마다 그들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인테리어 트렌드나 건축 양식은 이러한 일산의 전원 주택가를 더욱 세련되고 색다르게 바꿔주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일산의 전원 주택에서 돋보이는 리모델링 방식은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부 인테리어를 트렌디한 자재와 설계로 교체하는 것. 이 집도 마찬가지. 불박이장이 방마다 모두 설치되고 벽면은 흰색 계통의 페인트로 마감해 어둡고 칙칙해 보일 수 있는 외관의 분위기를 밝은 느낌과 섞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밝은 톤의 컬러는 실내를 넓어 보이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최근 건축되는 주택들은 아이보리나 베이지 컬러를 도입한 사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내장재의 마감이 얼마나 고급인가보다는

얼마나 실용적으로 설계됐는가 중요한 요소로 떠올라 건물의 구조는 거실을 넓게 하고 방을 크게 확장하며 부엌과 식당을 분리하는 게 요즘의 인테리어 트렌드. 이런 경향을 도입, 벽돌과 나무의 짙은 브라운 컬러가 줄 수 있는 답답함을 중화시키기 위해 벽면과 커튼, 침대 시트 등의 내부 자재들을 화이트&아이보리 컬러로 구비했다. 잘 가꾸진 정원과 합리적으로 리모델링된 내부 인테리어를 지닌 일산의 전원 주택은 투자 가치도 높은 편.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된 주택이 많은 곳, 넓은 정원과 견고한 설계로 건축된 집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일산. 이곳에서는 기존의 동화 같은 모델의 주택과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인테리어가 도입된 빌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지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이 되면 완성되는 일산 전원 주택의 정원이 자못 궁금해진다. ☺